

한국 부엌의 변천 -구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¹⁾-

Changes of Kitchen Litespace in Korean Family Houses

- from the Old Stone Age to the Koryo Dynasty -

윤 복 자²⁾

Yoon, Bokcha

박 선 희³⁾

Patrk, Sun Hee

이 길 순⁴⁾

Lee, Kyl Soon

김 혜 정⁵⁾

Kim, Hye Jung

성 해 숙⁶⁾

Sung, Hae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of the kitchen litespace in Korean family houses from the Old Stone Age to the Koryo Dynasty.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changes of kitchen litespace in Korean family houses from the Old Stone Age to the Koryo Dynasty have been affected by natural, political, economic, technological,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s. The Kitchen litespace of these periods was categorized into six categories: the Beginings Period of the Kitchen, the Period of the Primitive Kitchen, the Formative Period of the Kitchen, the Enlargement Period of the Kitchen, the Separation Period of the Kitchen, and the Begining Period of the Traditional Kitchen.

¹⁾ 이논문은 1993년도 주식회사 한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²⁾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교수

³⁾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⁴⁾ 신구전문대학 가정학과 교수

⁵⁾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⁶⁾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거는 문화(文化)의 구체적 표현체(表現體)이며, 주택이라는 단위 공간은 인간의 행위가 펼쳐지는 기본 장(場)이 된다. 인류가 생존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인간은 생활의 장이 되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개선시키기에 부심(腐心)하였으며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된 과제이었다. 이러한 과제는 그 나라나름의 자연적(自然的), 인문적(人文的) 여건에 따라 다르게 표현 발전되어 왔다.

인류 최초의 주거는 수혈주거(竪穴住居)로 식(食) 과 침(寢)의 두가지 기본 기능이 단일 공간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부엌공간의 역사는 영구한 것이며 인류의 주거사와 연혁(沿革)을 같이한다¹⁾. 수혈주거지내에 설치된 노(爐)의 성격, 즉 취사와 난방을 겸했던 주거 성격이 온돌구조라는 양식을 통해 현재까지 그 맥락이 이어지는 한국주거와 부엌공간을 형성한 점은 문화적 측면에서 흥미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서 부엌공간의 정체성(停滯性)을 규명할수 있다.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식량자원은 식생활의 범위를 한정시켰고, 영구한 세월 속에서 형성된 식습관은 한민족의 본질과 민족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윤서석, 1980). 이런 점에서 식생활공간의 요체인 부엌공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재인식시켜 준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 연구는 부엌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고, 생태학적 접근에 의한 총체적 연구를 한 것은 거의 전무

한 상태에 있다. 즉 각 시대의 구성원들이 부엌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생활하였으며 이런 부분이 자연적 환경 조건과, 사회문화적·정치적·개인 및 가족환경 속에서, 어떠한 부엌의 역할이 기대되고 건축적 방법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어떠한 기술이 이것을 가능케 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 부엌 공간의 형성과 변천(變遷)을 사적(史的)으로 고찰하므로 부엌의 전환을 가능케 한 시대적·사회적·문화적·기술적 배경 요소를 규명하므로 시대적 배경과 부엌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부엌의 특성을 시대별로 유형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연구 문헌과 사적(史的)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 방법을 행하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을 한다. 우리나라 부엌의 변천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연구 세미나를 통하여 개념의 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2차적 자료인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1차적 사료를 직접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구석기 시대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부엌의 변천을 다루나 원시 시대와 고대시대를 본문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고 다음에 조선시대 그리고 개화기에서 현재까지의 부엌의 변천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시대구분과 부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시대 구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구석기 시대부터 고려까지를 크게 원시시대와 고대 시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시대

1) 윤정옥(1981). 한국의 전통적 주방공간에 관한 연구

구분은 한국 역사의 일반적인 시대적 구분을 기초로 하여 분류하였다.²⁾ 원시시대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포함되며, 고대 시대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까지를 포함시켰다.³⁾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부엌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한 시대 구분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 고려의 여섯 시대로 나뉘서 그 특징을 언급한다. 통일신라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므로 이루어진 나라이므로 신라의 문화를 그대로 전수하여 시대를 따로 구분할 만큼 주거 공간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본 연구는 각 시대별 부엌의 특성을 정리 고찰하므로 부엌의 변천 시대별로 유형화하는 연구인데 통일신라시대에는 부엌의 변화가 삼국시대와 별다른 바가 없으므로 삼국시대로 묶어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삼국과 통일신라 시대를 함께 논한다.⁴⁾

2) 부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

각 시대의 부엌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는 크게 시대적 배경, 주거의 특성, 부엌공간의 특성으로 나누었다. 시대적 배경은 자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족환경으로 분류하여 부엌공간의 형성에 영향 준 요소를 살펴 보았다. 부엌은 주거 공간의 일부이므로 부엌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주거 전체의 특성을 설명한 후 부엌공간의 특성을 설명한다. 주거 전체의 특성을 주택의 위치, 형태, 구조, 크기, 재료, 공간

구성 등을 서술하였다. 부엌 공간의 특성은 부엌의 크기, 구조, 재료, 위치, 내부 공간 구성, 시설 및 설비와 취사 도구, 식생활과 부엌의 기능등을 포함시켰다.

II. 부엌의 변천

각 시대 마다 부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 요소와 주거의 특성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부엌의 변천<표 2>을 논한다.

1.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는 수렵과 채집 경제 사회로 모계를 중심으로 공동생산, 공동 소비를 하는 집단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자연 동굴에 살면서 쪼개, 굽개, 주먹 도끼등 타제석기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고 생활하였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이러한 불이 음식물을 익히는데 사용되었음을 감안 할 때, 부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 부엌공간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연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별다른 취사도구가 없이 타제돌칼과 비늘 굽개로 음식물을 대강 다듬어 조개 껍질과 같은 그릇에 담아 먹었다(박희현, 1975).

신석기시대에는 세계의 전대륙이 빙하기에 접어든 시기로 신석기 후기에 이르러 농경이 시작되면서 재산과 힘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최초의 인공 주거로서 움집은 구석기 말기인 BC 2만년전 공주 석장리 유적으로 보아 구석기 후기에 움집이 시작되었으나 보편화되지는 못하였으므로, 신석기 시대에 보편화된 대표적 주거 유형이었다. 이 움집은 수혈주거로 땅속으로 파 들어가 집을 지었으므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나 출입시설이 필요했고 주거규모가

2) 김정배(1973) 한국사1. 국사편찬 위원회.

3) 원시시대는 우리나라에 구석기 문화가 시작된 BC 50만년에서부터 삼국 중 가장 먼저 건국된 신라가 고대 국가를 세운 BC 57년 이전 까지로 약 50만년 정도의 기간을 말한다. 고대 시대는 삼국시대가 시작된 BC 57년 부터 조선이 건국되기 전인 1392년 이전까지로 약 1450년 간의 기간을 말한다.

4) 이시대와 관련된 문헌 자료와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영환(1991) 등의 연구에서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묶어 설명하였음.

<표 1> 각시대별 배경과 주거의 특성의 변천

시대	원시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고대시대	고대시대
배경특성	BC 50만년	6000년	1000년	BC 800년	BC 57년	AD 918년 1392년
자연	빙하기	제산과 빙의 개념형성	소규모 국가 출현	고대국가의 형성	수나라, 당나라와의 교류	수나라와 평화적교류 원나라의 무마국 유교사상에 입각한 정치
정치					수나라, 당나라와의 교류	
경제	수렵, 채집 경제	농경의 시작	농경의 본격화		농업과 이점을 전업	
사회	공동생활, 소비, 노동	부계중심 사회로 진화		계급 형성(노예제)	신봉제도(신라, 팔봉제) 귀족, 평민, 노예	귀족, 양민, 노비
문화	불의 사용 타제서기(세계, 解계, 추비, 도끼)	바체서기	청동기	철기	불교의 전래(연꽃무늬) -- 현실에 적용 한자의 사용 신화(북아칠, 농사의 신 까마귀, 해탈벌 중매) 일월분별, 사상 도교 사상(선진, 선녀, 용)	현실에 적용
건축	집단생활	가족수의 증가		농성, 불온, 에부제	서부부가(僧伽師家)	서부부가, 일부다처 자유분 화, 처첩 자녀 구분 상속, 동성혼 폐지, 재가의 의 자유, 근친혼
주거양식	굴	움집	반 움집 고상주거	나무집		
양식	타원형, 방형, 말각방형	원뿔형		장방형		
구조	지붕과 벽의 구분 없음	구름 기슭의 발달 (용마루, 대청, 불문, 명화 지붕과 벽의 구분 없음 (천장, 기둥의 완성)				
규모	소규모(평균 18m ²)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공간구성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주생활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기타	종인 시선이 임용 소규모 주택 형성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대형화(기거, 취사, 저장 내부기능이 많아)				
		남녀 공간의 공간구획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 (부엌, 창고, 우퇴, 변소)				
		칸, 책의 공간 분화 (상부, 상침채, 부부속채)				

<표 2> 각시대별 부역의 변천

시대 부역특성	원				시		시		시		시		대		시		대	
	구	석	기	시	대	청	동	기	시	대	철	기	시	대	고	대	시	대
BC 50만년	BC 6000년	6000년	1000년	BC 800년	BC 57년	1392년	AD 918년	1392년	BC 57년	AD 918년	1392년	BC 57년	AD 918년	1392년	AD 918년	1392년	AD 918년	1392년
나문 열매 대형동물 물고기	수형동물 어류 비룡의 껍질 뿔을 주식으로 하기 시작	수형동물 어류 비룡의 껍질 뿔을 주식으로 하다 는것을 남은 후	쌀, 보리, 수수, 조, 기장 곡식가루에다 는것을	가축(돼지)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가축(노루, 소, 돼지, 닭)
식	생	활	특	성	음집의 중앙	음집의 반대한 안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위치	동굴 중앙	음집의 중앙	음집의 반대한 안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문의 서쪽
형태	불	노지(원형, 타원형, 방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구조	기운대기	낮게	피어짐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주변에 돌을 쌓음
크기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지름 1m
재료	진흙바닥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진흙바닥 + 관석
공간	노 1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노 2-3개
구성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난방, 취사, 조명기능)
시설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저장공(음식의 저장기능 + 그릇의 수납기능)
설비	생식 비늘 타채 돌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돌궂개 돌칼 조개 석칼, 멧돼지 이빨칼
취사	조개 껍질 그릇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고래뼈 접시
도구	조개 껍질 그릇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단지, 보시기, 대접

작았다. 이들 주거는 원뿔형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지붕과 벽이 구분이 없었던 가장 손쉬운 기본적 구조로 되어 있었다(장보웅, 1976). 신석기인들의 식생활은 자연 채집보다는 어로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졌고, 농경이 시작되므로 쌀 위주의 주식 문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농사 기술의 부족으로 수확량이 많지 못해 식생활 급원에 있어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윤서석, 1970).

이 시대는 일실 일주거였으므로 부엌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짓기 어려우나 노(爐) 주변이 부엌의 개념과 일맥 상통된다. 공산리 4호나 지탑리 2호 주거지를 보면 부엌은 주거인 움집의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흙바닥 가운데를 움푹 파고 그 주변에 댕돌을 1m정도 크기의 원형으로 둘러싸은 구조를 하고 있었다(장보웅, 1976). 이 시기의 부엌 시설 및 설비는 저장공이 중요한 기능을 하였는데 이 저장공은 음식물의 저장 기능과 함께 그릇의 수납 기능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저장공을 거꾸로 묻었던 구멍이 노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 저장이 부엌의 중요한 기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⁵⁾ 이런 저장공은 저장해야 될 곡식이 많아짐에 따라 용량이 작은 저장공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라지고 별도의 수납 기능을 하는 창고와 같은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릇의 수납 기능은 삼국시대의 배선장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취사 도구는 구석기 시대에 이미 있었던 굽개나 칼 종류가 타제에서 마제 석기로 그 모양이 정교해지며, 조개 식칼과 댕돼지 이빨칼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식생활이 어로와 소형동물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준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인 빗살무늬 토기는 항아리형 또는 바리형으로 만들어졌

으며 식기 그릇이나 조리용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토기는 음식을 익혀 먹기 위한 용기로 사용된 것을 볼 때 오늘날 솥이나 냄비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토기는 신석기 시대 후대에 이르러 빗살무늬에서 번개 무늬로 바뀌다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무문으로 바뀌고 흉도도 생기게 되었다(김원용, 1972). 고래뼈 접시 외에도 단지, 보시기, 대접 등 기본적 식기가 생겨나며, 오늘날 믹서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댕돌도 이 시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청동기시대에는 정치적으로는 부족 국가가 출현하며, 청동기를 사용함으로 노동의 효율이 높아져 농경이 본격화된다. 따라서 농사일을 남성이 맡게 되므로 이 때부터 부계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 조선시대에 이어 현재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경의 본격화에 따라 농사를 지을 인력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가족수도 증가하고, 기술과 풍부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주거의 규모도 커졌다(홍영옥, 1992). 따라서 이전에 대부분 주거 공간 외부에서 이뤄지던 생활 행위가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 주거가 다양한 생활 기능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용마루, 대공, 천정 등 구조 기술의 발달로 지붕과 벽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원초적 구조에서 지붕과 벽의 구분이 생기면서 천정 가구가 완성되므로 수혈주거인 움집에서 반움집으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다음 시대에는 고상식 주거로 발전하게 되어, 오늘날의 주거 구조의 원형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최몽룡, 1989). 이 시기에는 신석기 시대의 일실일주거형이 계속되나 일실에 많은 생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이지만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영역이 분화된 것이 남자 공간과 여자의 공간의 분화로 여성 공간인 부엌 공간이 가장 먼저 분화되었다.

5) 장보웅(1976) 한국선사시대의 원시 민가 연구. 한국학 연구소.

이 시대의 부엌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의 분화를 들 수 있다. 부엌의 위치는 주거의 중앙에서 출입구의 반대편인 주거의 안쪽으로 옮겨져 노의 분화로 부엌의 영역이 따로 구획된 시기이다.⁶⁾ 노의 수가 2-3개로 많아짐에 따라 하나의 노에 의지하던 기능이 취사용, 난방용, 조명용, 작업용 등으로 분리되어져 나갔다. 이는 취사를 하는 식사 영역과 잠을 자기 위해 난방을 하는 영역이 분리된 것으로 볼 때 식침 공간이 오늘날 처럼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으나 영역은 분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사용된 청동기 도구는 이전에 석기로 농사를 지을 때와는 달리 노동의 능률을 올릴수 있어 농사 수확물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저장 시설을 필요하게 되어 주거 공간에 저장공이 없어진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따라서 부속사로 독립된 저장 시설을 갖추므로 부엌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확장되었으나 부엌의 내부 기능면에서는 저장의 기능이 없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시기에 사용된 토기는 신석기의 바닥이 뾰족한 토기와는 달리 민 무늬에 평평한 바닥으로 바뀌었고, 식기용 그릇의 발달로 토기는 식기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조리 용기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토기는 금속 도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구리솥, 헛솥, 시루로 발달하였다. 주발과 접시류 등 식기용 그릇이 발달하여 종류가 다양해질뿐만 아니라 그 모양도 굽다리나 손잡이가 달린 것 등 다양해졌다. 그외에도 목기류 그릇의 출현으로 재료가 다양해졌다.

철기시대에는 철기를 무기로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 싸움에서 진 부족이 힘있는 강대한 부족에 속하게 되므로 부족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족국가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의 고대 국가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시기는 전쟁에서 진 부족

이 노예가 되므로 계급형성이 두드러지고, 이런 사회 계층의 차등현상이 주택에 반영되어 주택의 모습이 계층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시기의 주거의 구체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우나,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의 주거의 특징을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철기시대는 이 두 시기의 과도기적 특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부엌, 창고, 우리, 변소 등 건물이 나뉘어있었다는 기록이⁷⁾ 있어 기능에 의한 공간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뿐이다.

철기시대의 부엌의 특징은 부엌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주택과 마찬가지로 반 움집의 일실 주거내의 분화된 노 부엌이 삼국시대에 와서는 여러 부속채를 거느린 독립된 부엌으로 변화한 것을 볼 때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의 과도기적 특징을 지녔을 것이다. 문헌에서 고증된 내용에 의하면(김정기, 1977) 이 시기에 부정⁸⁾이라는 소창고가 있었으므로 부엌의 부속채가 생긴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부엌의 설비도 갖추어져 배수 시설인 집수 구멍이 설치되었으며, 여러 나라와의 교류로 인한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검은 간토기, 덧띠 토기 등도 생겨나 토기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쌀 위주의 식사에서 보리, 기장, 조 등을 섞은 곡식 가루에 다른 것을 넣어 만든 죽을 먹었던 식사 유형이 청동기 시대 이래로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2. 고대 시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는 수나라와 당나라와 교류를 하여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여 새로운 통치체계를 확립시켰다. 한자와 불교가 전래되어 중국대륙에 발달된 예술문화가 유입되

7) 안악 3호 동수묘 동측간 벽화.

8) 마선구 1호분에 부정의 그림이 있다.

6) 오동 8호 주거지.

는 계기를 제공하여 종래까지의 원시적 문화 단계에서 벗어나 고도의 성숙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주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생업은 주로 임업과 농업을 병행하였다. 다소 미약했던 철기 시대의 사회계층 분화와는 달리 신라는 골품제에 의해 엄격하게 신분 계층의 구분되었다. 이러한 신분제도는 주거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규모면에서 계층에 따른 차이가 많았다. 하류 계층은 홀랑집이거나 삼랑집정도인데 반해 상류 계층은 넓은 대지에 높은 담장을 하였고 채와 칸에 의한 공간이 분화되어 주거 규모가 매우 컸었다. 이들은 까마귀, 불, 야철, 농사, 해, 달, 별 등의 신을 숭배하였고, 도교, 선풍사상(화랑도정신을 이어 받은 사상)과 영혼 불멸사상을 가지고 있었다.⁹⁾ 이 때는 서류부가(瑠留婦家)제도가 있어 결혼후 사위가 사는 집인 서옥(瑠屋)이 있었는데 이런 풍습은 고려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주택 기술이 발달되어 우진각, 합각, 네모, 팔각 지붕 등의 모양이 발전하였고, 재료도 녹유기와, 골기와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불꽃 기와, 귀면와, 암기와, 수기와 등으로 지레를 할 정도로 주거 건축 기술이 매우 발달하였다. 신을 벗는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은 이 시기에 시작되었고, 평상과 좌상 등의 가구를 이용하여 생활하였으며, 다채로운 색상의 휘장을 쳐 화려한 실내를 꾸몄다. 또한 이시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주거 원형인 온돌과 마루 공간이 혼합된 시기이다(박강희, 1988).

이 시기의 부엌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엌은 별동으로 독립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육고간, 방앗간, 우물, 외양간 등 부엌의 부속시설이 있었다. 이 시기에 지에밥(고두밥)이나 떡인 주식과 부식으로 나뉘지는 식사행식이 시작되었고, 오늘날의 김치와는 다르지만 채소와 누룩을 섞어 만든 걸저리 김치가 있었고

간장, 된장 등 저장 식품의 발달로 부엌의 부속 시설인 장독대 공간이 생겼다(윤서석, 1980). 또한 돼지 소, 닭 등의 가축을 길러 식생활 급원으로 이용하였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의하면 쌍어단이로 된 부엌의 출입문을 볼 수 있으며 바닥은 흙바닥이거나 녹유전을 깔기도하였다. 부엌의 내부구조는 아궁이와 굴뚝이 달린 부뚜막과 배선장으로 이루어져 배선장은 식기 보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현재의 작업대 수납장의 역할을 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 목기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설겄이통으로 현재의 개수대로 그 맥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취사 도구도 세분화되어 발전하여 일상용 그릇뿐 아니라 의식용 그릇도 구분되며, 반찬을 담는 보시기, 주식을 담는 사발 외에 종지, 접시, 대접, 탕기, 잔 등으로 다양해지며 재료면에서도 유리, 금, 은, 목기, 청자기로 다양해졌다.

고려시대는 대외 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송나라와는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나라와는 부마국으로서 사대관계였으며, 유교 사상에 입각한 정치를 하면서 불교를 실생활에 적용하였다. 고려시대 정신 세계를 지배한 것은 유교와 불교외에 노장과 선풍사상이 삼국시대 이래로 계속되었고, 풍수도참 사상도 오랜 뿌리를 가진 무격신앙이었다. 이조 시대와는 달리 처첩 자녀가 구분한 상속을 하였고 동성혼, 과부의 자유 개가, 근친혼 등이 허용되었던 사회이었다. 이시기에는 귀족, 양민, 노비의 신분 계층이 구분되었는데 이에 따라 주거의 모습이 차이가 있어 상류주택은 호화스럽고, 고도로 발달된 건축 기술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주택을 지어 내부도 비단, 보료, 문석, 대석 등을 깔았으나, 하류계층은 움집과 다름없는 보잘 것 없는 주거에 거주하면서 소박한 평상이나 깔개를 사용하였다.¹⁰⁾ 그러나 온돌과 마루와 혼합된 우

9) 조선일보사(1994).

10) 고려 도경 제 3권 성읍조.

리나라의 전통 주거의 모습이 이 시기에 보편화되고 가묘를 권장하여 사당 공간이 주택에 들어오게 된다.

이 시기의 식생활은 밥을 짓기 시작하므로 주식과 부식으로된 식사 양식의 기틀이 형성되었고, 별식으로 국수를 먹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취사 도구가 발달하였다. 부엌은 실내 일면갱(一面坑)에서 삼면갱(三面坑)으로 발달되고 다시 온돌방에서 정지방으로 바뀌면서 난방과 취사 겸용인 우리나라의 전형적 부엌구조가 발달하게 되었다.

2. 부엌의 유형

이상의 부엌의 물리적 특징과 기능을 종합하여 시대별로 그 유형을 명명하면 <표 3>과 같다.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부엌의 특징을 토대로 보면 구석기 시대는 불을 댐 자리가 부엌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부엌이 태동기라 유형화할 수 있고 신석기 시대는 일실주거내에 가장 원초적인 형인 노(爐)가 부엌인 시기이었다. 청동기시대는 한 개였던 노가 여러개로 분화되면서 별도로 구획되어 부엌의 영역이 형성된 시기이며 철기시대에는 부엌에 포함되었던 음식물의 저장기능이 별도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부엌에 부속사가 생기므로 부엌이 확대된 시기이다.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는 부엌이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세워진 시기로 부엌 독립기로 유형화 하였고 고려 시대는 난방과 취사 겸용 부뚜막이 시설된 우리나라의 전통적 부엌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전통형 발단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전통적 부엌은 개화기와 더불어 서구식 양식이 들어옴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부엌이 형성된 것이다.

<표 3> 시대별 부엌의 유형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특징	독립된 부엌은 없었으나 부엌의 역할을 한 불자리가 처음 생겨남	기능이 완전히 분화되지 못한 원초적 형태의 노가 생겨남	노의 갯수가 많아지므로 취사기능이 분화되어 별도의 부엌영역이 생겨남
유형	부엌의 태동기 태동기 주거	원초형 주거 부엌	부엌 영역의 형성기

	철 기 시대	삼국, 통일신라	고 려 시대
특징	부엌의 부속공간으로 저장시설이 부속되므로 부엌이 확장됨	부엌이 독립된 체로 분리됨	전통부엌의 전형인 취사와 난방 겸용의 부뚜막이 형성되기 시작함
유형	부엌의 확대기	부엌의 독립기	전통형 발단기

III. 결 론

원시시대와 고대시대를 중심으로 부엌의 변천을 살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제언한다. 우리나라의 부엌은 불을 사용한 자리에서 부엌이 태동하여 원초형 주거 부엌, 부엌 영역 형성기, 부엌 확대기, 부엌독립기, 전통형 부엌의 발단기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전통형 부엌의 기초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 시대별로 각기 달리 나타나는 부엌의 특성은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부엌의 모습은 각 시대적 배경과 상호작용하여 발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부엌의 역사적 접근에 있어 생태학적 접근 방법이 합리적임을 시사해주므로, 주거형태나 주택의 다른 공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본 연구의 틀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여러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국내의 제한된 2차적 자료인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폭넓은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영환(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 김원용(1972). 삼국공예사. 한국여성사1. 이대 출판부.
- 김정기(1970).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 대계 4: 풍속예술사(上).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김정기(1967). 한국수혈주거지고(一). 고고학 제 1집. 한국고고학회.
- 김정기(1974). 한국수혈주거지고(二). 고고학 제 3집. 한국고고학회
- 김정기(1977). 문헌으로 본 한국 주택사. 동양학 7집.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 김정배(1973). 한국사1. 국사편찬위원회.
- 김홍식(1980). 주생활. 한국민속대관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류영박(1991). 한국문화사. 동방도서.
- 박강희(1988). 고구려문화사, 논장신서9. 사회과학출판사.
- 박희현(1975). 한국후기 구석기 시대의 생활과 문화. 백재문화 제 6집. 백산학회.
- 손보기(1973). 구석기 문화. 한국사공. 국사 편찬위원회.
- 손진태(1948). 한국민가형식고. 조선시대 민족 문화의 연구. 을서문화사.
- 양서문화사(1979). 한민족의 생활문화. 한국민속. 양서문화사.
- 윤서석(1970). 한국식품사. 한국문화사 대계4: 풍속예술사(上). 고대민족문화 연구소.
- 윤서석(1980). 식생활. 한국민속대관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윤정옥(1981). 한국의 전통적 주방공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논문.
- 장보용(1976). 한국선사시대의 원시 민가 연구. 한국학연구1,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 조선일보사(1994) 장안 고구려 고분 벽화.
- 정연국(1974).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 조성기(1980). 한국민가서설. 건축 24(93), 대한건축학회.
- 최몽룡(1989). 한국선사고고학사 연구현황과 전망. 까치 출판사.
- 홍형옥(1992). 한국주거사. 민음사.
- 황혜성(1971). 한국의 미각. 궁중음식 연구원, 서울.